올해 신규 벤처투자·펀드 결성금액 '역대 최대' 기대감

중기부, 신규 벤처투자 금액 12.6조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20% 차지
벤처펀드 결성액 12.9조… 30%↑

〈1~3분기 기준 벤처투자 현황〉 (단위 : 억원, 개 사)

구분	2021년 1~3분기	2022년 1~3분기	2023년 1~3분기	2024년 1~3분기	2025년 1~3분기	2026년 1~3분기	전년대비
투자금액	108,679	102,126	77,118	86,463	98,362	126,248	+28.4%
기업당 평균 투자액	32.7	32.2	25.7	25.1	31.0	37.0	+19.2%

*벤처투자회사·조합 및 신기술금융사·조합 합산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올해 신규 벤처투자 실적과 벤처펀드 결성금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분기까지의 투자 실적, 펀드 결성금액이 최고 기록을 써내려가면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1~3분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신규 벤처투자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9조8362억원)보다 28.4% 증가한 12조6248억원으로, 종전 최고 기록인 2021년 1~3분기(10조8679억원)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벤처펀드 신규 결성금액은 12조99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7% 상승했고, 앞서 최고 실적이었던 2022년 1~3분기(12조7465억원)를 넘어섰다.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정책(2조5522억원)과 민간의 적극적인 출자(10조4448억원)가 합친 결과라는게 중기부의 분석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1년 당시에 벤처투자 금액(15조9371원)과 벤처펀드 결성액(17조8493억원)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3분기까지 벤처투자금이 가장 많이 모인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로 19.9%(2조5061억원)를 차지했다. ▲전기·기계·장비(2조2447억원·17.8%) ▲바이오·의료(1조9174억원·15.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벤처투자 증가분(2조7886억원)의 절반 이상이 ICT 제조와 전기·기계·장비 업종에서 이뤄졌다. ICT 제조와 전기·기계·장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7%, 53.1% 늘었다.

반도체, 로보틱스, 첨단제조 같은 인공지능(AI) 관련 분야에 대한 대형 투자가 실적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글로벌 뷰티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의 대형 투자 유치 효과로 화학·소재 업종 투자(1조32억원)도 1년 전보다 25.1% 증가했다.

지난 1~3분기 벤처투자는 업력 7년 이하와 7년 초과 기업 둘 다 상승했다. 7년 초과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6조7802억원)는 전년 동기 대비 28.6%, 7년 이하 기업에 대한 투자(5조8446억원)는 28.1% 확대됐다.

특히 3년 이하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6% 늘어난 2조5476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AI·로봇·반도체 분야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형 투자를 주요인으로 꼽으며, 올 3분기부터 모태펀드의 창업초기 펀드 결성이 시작되면서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 1~3분기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투자 모두 늘었다.

수도권 벤처투자는 4조30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0% 증가했는데, 경기도가 AI 반도체, 바이오·의료 분야 기업의 대형 투자를 유치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7% 상승한 비수도권 벤처투자(1조5199억원) 가운데 대전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으로 5802억원의 벤처투자 금액을 확보하며 전년 동기 대비 72.9% 상승했다. 바이오·의료 기업을 내세워 벤처투자 1978억원을 유치한 부산도 140.6% 증가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은 벤처 생태계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모태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유망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모험자본 공급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공연 "일법 패키지, 사망선고 다름없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시
소상공인 연평균 영업익 20% 부담
인력 AI 대체, 퇴직금 폭탄 등 우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국회에서 '일법 패키지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소공연

소상공인업계가 정부 추진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일법 패키지(일하는 사람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들은 811만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어 국가적 고용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일괄 적용하는 이번 법안은 전체 노동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모는 극단적인 규제"라며 "쥐 한 마리 잡겠다고 집 전체에 폭탄을 투하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일법 패키지가 시행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사업주가 근로자 1인당 월 42만원, 연간 약 50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 연간 평균 영업이익(2500만원)의 20%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자영업자의 75%가 연 2000만원 이하의 영업이익으로 버티는 현실 속에 근로자 추정제로 인한 추가 부담은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인공지능(AI)과 자동화 여파로 양질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용 저수지' 역할을 해 온 소상공인의 일자리 둑마저 터져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근로자 추정제가 실시되면 현장 인력을 무인 키오스크와 AI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특히 소공연은 근로자 추정제가 '퇴직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했다.

소공연은 "법률적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성 반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전과자로 내모는 올가미"라며 "소멸시효가 3년인 퇴직금 분쟁에서 계약 관계가 끝난 인력이 뒤늦게 노동청에 고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대형 로펌이나 노무사의 자문을 상시로 받을 수 없는 영세 사업자들은 부당한 합의를 강요받거나 형사처벌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일법 패키지 입법 논의 중단과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플랫폼 업종별 수수료 및 업무 형태에 대한 실태 파악 후 데이터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노동부에 요청했다.

송 회장은 "우리의 절박한 생존의 목소리가 반영돼 법안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전국 소상공인과 연대해 강력하게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고급세단 품격, 역동적 주행 모두 담았다

YG의 CAR TALK 카톡

BMW 더 뉴 i7 60xDrive

BMW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는 고급 대형 세단이 갖춰야 할 품격과 안락함,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BMW의 플래그십 전기 세단 '더 뉴 i7 60 xDrive'는 운전대를 잡았을 때도, 뒷좌석에 몸을 맡겼을 때도 각기 다른 매력을 드러냈다. 544마력의 강력한 출력이 선사하는 운전의 재미부터 31.3인치 대형 스크린이 구현하는 프라이빗 영화관까지 한 대의 차에서 두 가지 경험을 누릴 수 있었다. 운전자와 탑승객 모두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럭셔리 세단의 매력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BMW '더 뉴 i7'



BMW '더 뉴 i7' 2열에 설치된 31.3인치 BMW 시어터 스크린. /양성운 기자

전기차 특유 즉각적 가속 반응
544마력 출력에도 정숙성 유지
영화관 같은 31.3인치 스크린

지난 4일 경기 가평군 청평 일대에서 신형 BMW i7을 시승했다. 전장 5395㎜, 휠베이스 3215㎜에 달하는 거대한 차체는 도로 위에서 단번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대형 키드니 그릴과 날렵한 분할형 헤드라이트가 어우러진 전면부는 BMW 플래그십다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차량에 탑승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가속 반응이다. 앞뒤 전기모터가 발휘하는 최고출력 544마력, 최대토크 76.0kg·m는 차체의 무게를 잊게 할 만큼 시원한 힘을 전달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4.8초. 가속페달을 깊게 밟으면 묵직한 차체가 거침없이 속도를 끌어올렸다. 강력한 출력에도 실내는 놀라울 정도로 정숙성을 유지했다. 에어 서스펜션과 후륜 조향 시스템은 대형 세단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뒷받침했다.

또 주행시 가장 만족스러운 기능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BMW 파노라믹 비전이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는 차선 정보와 경로 안내, 속도 경고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앞 유리 하단 전체에 주행 정보를 표시하는 파노라믹 비전을 제공해 주행 시선이 중앙 디스플레이로 분산되는 일이 없었다.

운전석에서의 만족감은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또 다른 차원으로 이어졌다. 2열에 탑재된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천장에서 31.3인치 BMW 시어터 스크린이 내려왔다. 동시에 측면 창문과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의 차양막이 닫히며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 완성됐다. 화면이 펼쳐지는 순간 차 안은 마치 영화관처럼 변했다. 주행 중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을 만큼 정숙한 실내와 대형 화면이 어우러져 나만의 프라이빗 극장을 연상케 했다. 다만 시어터 스크린이 뒷좌석과 가까워 장시간 시청시 피로도가 높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기차로서의 실용성도 갖췄다. 118.1kWh 배터리를 탑재해 국내 인증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08㎞다. 최대 250kW 급속충전을 지원하며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약 28분이 걸린다.

BMW i7은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전기차의 즐거움을, 뒷좌석 탑승객에게는 이동을 넘어선 휴식과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한다. 2억1490만~2억1790만원이라는 가격은 부담스럽지만, 운전의 재미와 이동형 럭셔리 라운지를 동시에 원하는 고객에게 BMW가 제시한 플래그십의 해답은 분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전기차엔 전용 타이어 필요"… 한국타이어, '아이온' 확대

'아이온' 소재 브랜드 필름 공개
정숙성·접지력 등 핵심 성능 소개

한국타이어가 전기차의 저소음·고토크 특성에 맞춘 전용 타이어 기술을 알리며 '아이온' 브랜드 확대에 나선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16일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을 소재로 한 신규 브랜드 필름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상은 '전기차에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정숙성과 접지력 등 아이온의 핵심 성능을 소개한다. 전기차의 주행 특성과 전용 타이어의 역할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숙성·그립력 두 편으로 제작했다.

정숙성 편에서는 엔진 소리가 없는 전기차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타이어 주행 소음을 다뤘다. 그립력 편에는 전기차의 강한 토크에 대응해 접지력과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담았다.

한국타이어는 2022년 유럽에서 아이온을 처음 출시한 뒤 한국과 북미, 중국 등으로 판매 지역을 확대했다. 교체용 타이어 시장에서는 퍼포먼스·사계절·올웨더·겨울용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의 판매 비중도 확대됐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승용차·경트럭용 신차용 타이어 매출에서 전기차 전용 제품이 차지한 비중은 32.3%로, 지난해 연간 27%보다 5.3%포인트 상승했다.

신차용 타이어 공급처도 늘리고 있다. 포르쉐와 BMW, 루시드, 폴스타, 현대자동차, 기아 등의 주요 전동화 모델에 아이온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영상을 글로벌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데 활용하고 전기차 주행 환경에 특화한 타이어 기술과 제품군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이승혁 기자 sh95@